"풍성한 진안홍삼축제 즐겨요"

10일까지 진안고원시장 · 마이산 북부 일원서 체험 · 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인 진안홍삼축제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진안고원시장과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펼쳐진다.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한방 특구에서 개최되는 진안홍삼축제는 진안의 명품 특산물인 홍삼을 주제로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지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와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에 선정될 만큼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로 발돋움해 왔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현장 대면축제로 개최되는 홍삼축제는 더 많은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펼쳐진다. 축제장을 마이산 북부에서 진안고원시장까지 확대했다. 축제장 공간 구성에도 변화를 줘 이전 축제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10월 7일 진안고원시장 일원에서 읍·면 대동농악 한마당과 홍삼노래자랑 예선전을 시작으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체험, 공연, 판매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10월 9일 오후 5시에는 2022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이 마이산 북부에서 펼쳐진다. 홍진영, 조항조, 현숙, 김용임, 신유, 조승구, 박상철, 금잔디, 요요미 등 국내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총출동해 진안홍삼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진안홍삼축제 포스터

또한 청정지역 진안고원에서 자란 최고 품질의 인삼으로 만들어진 명품 진안홍삼을 진안홍삼축제 축제장 곳곳에서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홍삼주제관과 홍삼주 만들기, 홍삼음식 시식 체험 등 홍삼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국의 내로라하는 팔씨름 장사들이 모여 힘겨루기를 벌이는 전국홍삼팔씨름대회를 비롯해 홍삼 관련 체험을 중심으로 한 스탬프 투어와 상설 이벤트 등을 열어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 증정으로 풍성하게 축제를 즐기도록 준비했다.

더불어 홍삼축제장 인근에 있는 국내 유일의 홍삼한방스파인 진안홍삼스파와 야간 조명이 아름다운 산약초타운, 다양한 가위가 전시 돼 있는 가위박물관 등 풍성한 주변 볼거리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어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3년만에 열리는 진안홍삼축제장을 찾는 분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많이 오셔서 진안홍삼이 주는 건강과 활력을 느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 개최

근무기간 5년 미만 직원 구성 조직문화 혁신 등 다양한 활동 추진

장수군이 6일 군청 전산교육실에서 '장수군 혁신 주니어보드'의 발대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주니어보드는 5년차 이하의 젊은 실무자로 구성된 회의체로, 수평적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조직문화 혁신을 이끄는 제도이다. 군은 공개모집을 통해 근무기간 5년 미만의 20~30대 직원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 15명의 주니어보드를 구성했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장수군 혁신 주니어보드는 앞으로 1년간 △조직문화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수렴 △혁신현장 벤치마킹 △업무문제 해결을 위한 전산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훈 장수 부군수는 "젊은 공직자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이 공직사회를 수평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기를 기대한다"며 "주니어보드의 활동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농업 · 농촌 혁신전략 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6일 전춘성 군수 주재로 농촌경제국·농업기술센터 부서장과 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진안농업 혁신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 진안농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선 8기 진안농업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농업·농촌 육성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군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민선 8기 핵심과제 선정 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핵심사업으로 일반농업, 홍삼한방, 축산, 산림, 귀농·귀촌 분야에 5년간 2,162억원의 사업비 투자 등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추후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농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혁신전략을 확정, 중점투자 계획을 수립해 2023년 예산 편성 및 중·장기 세부계획을 수립해 국가예산 확보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농업·농촌 혁신전략 보고회가 진안농업의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실질적인 군정 반영을 통해 진안군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안전대전환 집중점검 단체장 현장행정 추진

방화동가족휴가촌 방문
최훈식 군수 "시설물 대상 세밀한 안전관리 동참해달라"

장수군이 지난 5일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 단체장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이날 최훈식 군수는 방화동가족휴가촌을 방문해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참여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에게도 시설물에 대한 세밀한 안전관리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점검에 앞서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점검회의에서도 최 군수는 부서장들에게 실효성 있는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지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의 대대적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무원·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

군은 6개분야 시설물 84개소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장수군이 지난 5일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 단체장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최훈식 군수는 방화동가족휴가촌을 방문해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참여했다

최훈식 군수는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은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민간 시설물의 경우 시민의 자율점검을 통해 내 집과 내 점포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 위험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연중 안전점검 실시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의 주요 기조에 맞춰 '주민자율안전점검' 문화 확산을 위해 군민들에게 자율점검표를 배부·홍보·교육하는 등 자율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은 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 무주군의원, 무주국유림관리소장, 무주군산림조합장, 관련 실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기본계획 및 기본구상안을 진단했다.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 윤곽

무주군, 중간보고회 갖고 기본계획 · 구상 점검

영·호남을 잇는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등산과 트래킹, 치유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추진된다.

6일 무주군은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 무주군의원, 무주국유림관리소장, 무주군산림조합장, 관련 실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기본계획 및 기본구상안을 진단했다.

이날 용역 시행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안영삼 과장은 중간보고를 통해 '덕유산의 의미를 찾아 주변의 향토·산림·역사·문화와 길을 연결해 산림관광과 생태관광을 통한 쉼과 돌봄의 명품 둘레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둘레길 기본구상은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도보여행, 기존 등산로 및 임도 활용, 우수한 자연 및 마을환경을 경유하도록 해 자원을 활용한 둘레길 조성,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감안한 노선을 선정한 점이 특징이다.

덕유산만의 '덕'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을 선사해 산은 덕을 베풀고 사람은 길에서 덕을 얻음에 행복해하는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10대 덕목을 선정했으며, 코스별 역사, 문화 등을 면밀히 검토, 주제별 6개 코스를 계획했다.

주요 시설물로는 보행 데크시설, 덕유산 조망이 가능한 둘레길의 주요 공간에 전망 데크를 비롯해 정자와 벤치, 평상 등을 설치해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안내판과 산악위치 표지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덕유산둘레길 조성사업은 덕유산 주변에 2개 도 4개 군(무주 80km, 장수 20km, 함양 10km, 거창 50km) 15개 면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80억 원(무주 40억)을 투입해 숲길 신규개설을 비롯한 노면 및 부대시설 등 기존 숲길 정비, 둘레길 안내 시설(방향 표지판, 안내판), 편의시설 등이 오는 2024년까지 들어설 전망이다.

황인홍 군수는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의 한걸음 한걸음에 덕유산이 주는 풍요로운 '덕'이 묻어나 삶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둘레길이 4개 지자체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명품 숲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다양한 생물 연구 추진

무주군과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다양한 생물의 연구와 교육, 전시 및 교류를 함께 추진하는 길이 트였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시설사업소(소장 김경복)는 6일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와 생물다양성 보전·증진과 생물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무주군에 위치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와 무주곤충박물관이 무주 지역의 다양한 생물에 대한 공동 연구와 교육 및 전시 등 교류 협력을 통해 생물다양성 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차원에서 마련됐다.

협약은 △생물관련 학술조사 유전자원 확보 및 공동 연구개발 △생물 표본 및 연구시설의 상호 이용 △생물관련 교육 및 전시 분야의 상호협력 등을 담고 있다.

군은 무주곤충박물관이 보유한 곤충 표본들과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의 깃대종(특별히 관리하는 종)인 금강모치 등 다양한 생물자원에 대한 자료교환과 교류 전시를 통해 보호해야 할 생물종에 대한 대국민 홍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향뜨락' 청량리역서 무주반딧불 농 · 특산물 판매

무주군은 이달 31일까지 코레일유통(주) '고향뜨락' 청량리역 매장에서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판촉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홍보·판촉전은 지난 2020년 6월 코레일유통(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계속 이어진 행사 중 하나다.

이달 1일부터 개장된 청량리역 고향뜨락은 무주반딧불유통사업단이 무주군 업체에서 납품받은 머루와인, 천마, 옥수수, 도라지청 등 품목을 전시해 무주군전문 홍보관으로 운영한다.

청량리역은 유동 인구가 14만 명에 이르고 있어 홍보·판촉을 통한 무주군 우수 농·특산물의 인지도 상승과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무주반딧불 농 · 특산물 홍보·판촉을 계기로 수도권 및 전국의 소비자에 반딧불 브랜드와 무주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량리역 농·특산물 홍보관에는 시음과 시식, 할인판매 등 프로모션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이무상 과장은 "이번 청량리역 농·특산물 홍보 판촉 행사를 계기로 소비자와 신뢰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며 "지속적인 판매망이 구축됨으로써 무주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홍삼축제 행사장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진안군은 6일 마이산 북부에서 열리는 2022 진안홍삼축제 행사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행사장 시설물, 전기, 소방, 가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뤄졌다.

현장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진안군 및 진안군 안전관리자문단, 진안소방서 등이 참석해 민관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응급상황 발생을 고려해 구조·구급 진·출입로 확보 여부 점검도 함께 실시됐다.

더불어 지난 9월 28일 진안홍삼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열렸던 진안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 이행 여부 뿐만 아니라, 현장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지적된 사항은 축제 주관 부서에 신속한 안전관리대책을 요청해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료 셔틀버스 타고 진안홍삼축제장 가요"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 진안고원시장, 8일부터 10일까지는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2022 진안홍삼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축제장 전면에 차량통제를 실시하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외곽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셔틀버스 코스를 증설했다.

셔틀버스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만 두 코스로 운영된다.

1코스는 진안민남의 광장을 기점으로 진안터미널, 진안중앙초교, 진안홍삼한방센터, 진안고추시장(학천지구 주차장), 진안군청, 진안읍사무소, 진안로터리를 거쳐 홍삼축제장으로 이어진다.

2코스는 진안농업기술센터에서 홍삼축제장을 오가는 코스로 고속도로를 통해 진안IC로 들어오는 차량과 임실, 마령, 백운, 성수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주차 후 이용이 편하도록 마련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 청소년문화제 8일 청소년수련관 주관

진안홍삼축제 청소년문화제가 8일 진안군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개최된다. 홍삼축제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되는 청소년문화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이라는 공백을 깨고 청소년들만을 위한 축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무대에는 지역 동아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댄스, 노래, 난타, 실내악단 등 9개 팀이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칠 예정이며, 최근 음원차트 역주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경서예지' 등 화려한 라인업의 초청공연도 진행돼 청소년들의 코로나와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감도 크다.

특히, 이번 청소년문화제를 위해 지난 7월 청소년축제 기획단이 조직돼 행사의 기획과 홍보, 진행까지 직접 참여해 진정한 의미의 축제로 준비했다.

청소년축제기획단 대표 빈현욱 군은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문화제를 알리기 위해 홍보 및 UCC제작 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